

SeAn Magazine.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매거진
2023년 여름 (Summer)

세안그룹 정기발행 매거진 Vol.10

1편
서울시내 궁,
어디까지 가봤니?

경복궁
창덕궁
2편 예정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SEAN...



Contents

01 서울시내 궁, 어디까지 가봤니? - 1편	_____	Page 4
(1) 경복궁 - 조선 제일의 법궁		
(2) 창덕궁 - 한국의 자연과 정서를 담다		
(3) 창경궁 (2편에서 계속됩니다)		
(4) 덕수궁 (2편에서 계속됩니다)		
(5) 경희궁 (2편에서 계속됩니다)		
02 여행, 일상이 되다	_____	Page 14
03 문화 소식	_____	Page 16
04 퀴즈	_____	Page 18

익숙함에 숨겨진 아름다운 모습

서울시내 궁, 어디까지 가봤니?

2023년 5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Gucci가 서울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개최했다.

조선시대 왕실의 주요 행사 및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경복궁의 근정전은 전 세계 유명인들과 화려한 패션으로 가득했다. 또한 경복궁은 과거 방탄소년단의 공연 무대로 사용되면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ARMY들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202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처럼 이 시대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문장을 실감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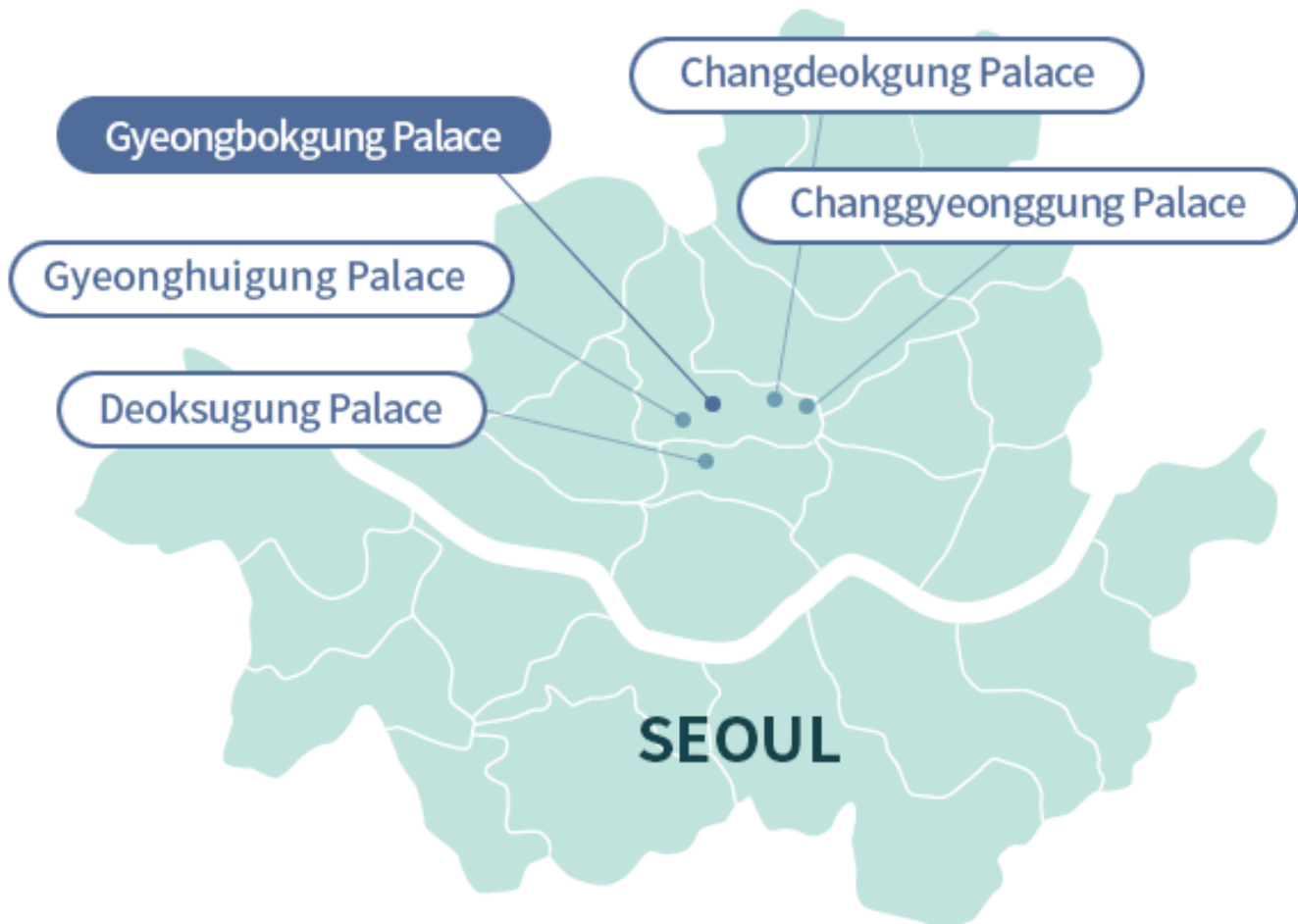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품고 있는 서울시내 궁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재미있고 의미있는 역사적 사실들과 함께 궁 투어를 떠나보자.



Seoul's Landmarks

5 Royal Palaces of Seoul



In May 2023, Italian luxury brand Gucci held a fashion show at Gyeongbokgung Palace in Seoul. Geunjeongjeon in Gyeongbokgung Palace, where major royal events and foreign envoys were welcomed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filled with celebritie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colorful fashions. The BTS performance was held at Gyeongbokgung Palace, and at this time, the whole world, including BTS' fan club ARMY, focused on Korea.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This is the acceptance speech of director Bong Joon-ho, who won the best director award at the 2020 Oscars for his film 'Parasite'. In this era when Korean culture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we are realizing the sentence “The most Korean is the most global.”

The most Korean thing

How much do we know about the palaces in Seoul that contain Korean history and tradition?

Let's go on a palace tour with meaningful historical facts.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경복궁은 조선 왕조를 대표하는 법궁이다.

(법궁 : 法宮. 임금이 거쳐하는 그 나라를 대표상징하는 첫번째 궁궐이자 공식 집무실 겸 공식 관저)

궁궐 안에는 왕과 관리들의 정무 시설, 왕족들의 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화문 - 흥례문 - 근정문 - 근정전 - 사정전 - 강녕전 - 교태전을 잇는 중심 부분은 궁궐의 핵심 공간으로 기하학적 구조로 대칭적으로 건축되었다. 반면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은 비대칭적으로 배치되어 통일과 변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느낄 수 있다.

Gyeongbokgung Palace is the representative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The palace is composed of the king's business facilities and spaces for living and resting for the royal family. The central part connecting Gwanghwamun Gate - Heungnyemun Gate - Geunjeongmun Gate - Geunjeongjeon Hall - Sajeongjeon Hall - Gangnyeongjeon Hall - Gyotaejeon Hall is the core space of the palace and is built symmetrically. On the other hand, except for the center, the rest of the buildings are asymmetrically arranged, so you can feel the beautiful harmony of unity and change.

근정전

근정전은 '정치를 부지런히 한다'라는 의미로 왕과 신하들의 공식적인 조회 및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던 곳이다. 따라서 궁궐내에서도 가장 격식을 갖춘 건물로 규모도 가장 크다. 신하들은 마당에 놓여진 품계석을 따라 자리를 잡게 되는데 돌에 반사된 빛에 의해 눈이 부시지 않도록 바닥의 돌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 한 점이 인상적이다. 내부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봉우리의 산이 그려진 '일월오봉도'를 볼 수 있다.

[Geunjeongjeon Hall]

Geunjeongjeon was the place where the king held official ceremonies and received foreign envoys. Therefore, it was built on the largest scale in the palace. In the yard, there are stones that mark the ranks of officials, indicating their positions. At this time, it is impressive that the surface of the stone on the floor was roughened to prevent dazzling by the light reflected by the stone. Inside, you can see a painting called 'Ilwolobongdo', which depicts the sun, moon and five peaks of the mountain symbolizing royal power.



광화문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조선 제일의 궁궐 정문 답게 특별히 격식을 차려 장대하게 지어졌다.

[Gwanghwamun Gate]

Gwanghwamun is the main gate of Gyeongbokgung Palace. It was built especially magnificently as it represents Joseon.



경희루

경희루는 연못 안에 조성되었는데, 외국사신의 접대, 신하들과의 연회장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경복궁 창건 당시에는 작은 누각이었던 것을 태종 12년 (1412년)에 크게 연못을 파고 지금과 같은 규모로 만들었다고 한다. 경희루는 불을 억제하기 위한 형태로 디자인 되었으며 물로써 불을 제압하려는 의미로 물과 불을 능히 다스리는 용 두마리를 경희루 연못에 넣었다고 한다.

[Gyeonghoeru Pavilion]

Gyeonghoeru Pavilion, a pavilion located on a pond to the west of the living quarters, was built as a venue for feasts for foreign envoys and for the king and his court officials. Two dragons handling water and fire were placed to the north of the pavilion, symbolizing spring water that overwhelms fire.



집옥재

고종의 서재 겸 외국사신 접견장으로 사용된 집옥재는 당시 신식이라고 생각되던 중국풍을 받아들여 지어진 것으로 다른 건물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보배를 모으다' 라는 아름다운 뜻을 지닌 이 건물은 지금은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Jibokjae Hall]

Jibokjae, which was used as King Gojong's study and reception hall for foreign envoys, was built by accepting the Chinese style, which was considered new at the time. So, the atmosphere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buildings.





향원정

고종이 연못 한 가운데 인공의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육각형태의 2층 정자를 올리고 ‘향기가 멀리 퍼져나간다’ 라는 의미의 향원정이라 불렀다. 이 향원정을 가기 위해 건너는 구름다리는 ‘향기에 취한다’라는 뜻으로 취향교라고 한다.

[Hyangwonjeong Pavilion]

King Gojong built an artificial island in the middle of the pond and placed a hexagonal two-story pavilion on it. And it was called Hyangwonjeong Pavilion, which means ‘the fragrance spreads far’. The bridge connected to this Hyangwonjeong Pavilion is called Chwihyanggyo, which means ‘to be intoxicated by the scent’.

건청궁

‘하늘은 맑다’ 라는 뜻의 건청궁은 왕과 왕비가 휴식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고종은 특히 이 곳을 좋아하여 왕비와 함께 자주 머물렀다고 한다. 아름다운 향원지를 앞에 둔 이 장소는 조선말기 정치적 혼란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1895년 일본인들이 궁궐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곳이 바로 이 곳이다. 명성황후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 ‘영웅’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이 곳은 경복궁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장소가 아닐 수 없다.

[Geoncheonggung Residence]

Geoncheonggung, which means ‘the sky is clear’,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resting for the king and queen. King Gojong especially liked this place and often stayed with the queen. This place also became a place of political confus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is where the Japanese attacked the palace in 1895 and assassinated Empress Myeongseong. It is a place that contains the most heartbreaking story in Gyeongbokgung Palace.



창덕궁

Changdeokkung Palace

창덕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지어진 것으로 이웃한 창경궁과 형제궁궐이라 부른다고 한다. 임진왜란으로 모든 궁궐이 소실되어 광해군 때 재건된 창덕궁은 1867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전까지 조선의 법궁 역할을 하였다. 조선의 궁궐 중 가장 오랜 기간 임금이 거처했던 궁궐이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좌우대칭 일직선상에 건물을 배치한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은 지형에 알맞게 비정형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 인상적이다. 비원으로 잘 알려진 후원은 각 구역마다 다양한 정자와 연못이 있어 4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자연과 조화로운 배치와 한국의 정서가 깊이 담겨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Changdeokkung served as the royal palace of Joseon until Gyeongbokkung, which was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as rebuilt. It is the palace where the king lived for the longest period among the palaces of Joseon.

Unlike Gyeongbokkung Palace, which arranged buildings symmetrically to symbolize the king's authority, Changdeokkung Palace arranged buildings in an atypical way to suit the topography.

There are various pavilions and ponds in each area of the secret garden. This garden is a place where you can feel the nature of Korea with four seasons. Changdeokkung Palace was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97 and is regarded as a masterpiece of Korean palace architecture where the buildings are in perfect harmony with the natural setting.

대조전

대조전은 창덕궁의 침전으로 왕비의 생활공간이다. 이 대조전을 주변으로 많은 부속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 흥복헌은 1910년 마지막 어전 회의를 통해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경술국치가 결정된 비극의 현장이다.

[Daejojeon Area]

The residence of the queen, Daejojeon was originally surrounded by many secondary buildings, including Heungbokheon, which was witness to a tragic moment in history. It is the tragic place where the last meeting of the dynasty was held to deliberate over Japan's annexation of Jos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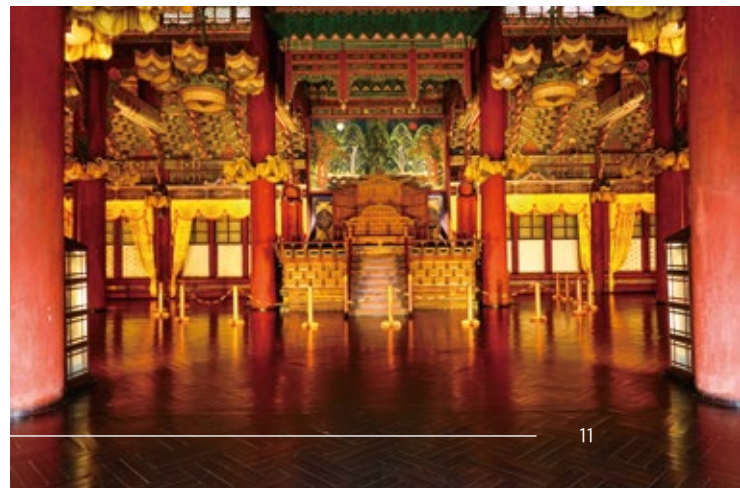


인정전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의 접견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다. 내부에는 임금님 용상이 있고 그 뒤에는 일월오악도라는 병풍이 있다. 이 병풍에는 음양을 뜻하는 해와 달이 있는데 이는 왕과 왕비를 상징한다. 그 아래에는 다섯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동,서,남,북,중앙의 다섯 산을 가르키며 국토를 의미한다고 한다.

[Injeongjeon Area]

As the main hall of Changdeokgung Palace, it is where important national ceremonies were held. Inside, there is a folding screen called Ilwol-Oakdo. There are sun and moon on this folding screen, which symbolizes the king and queen. The five mountain peaks under the sun and moon indicate the five mountains in the 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of Joseon, and signify the entire territory.





후원

창덕궁의 가장 매력적인 장소인 후원은 제한관람지역으로 해설자와 함께 시간제로 관람할 수 있다. 약 90분 정도 소요되며 조선시대부터 지켜져 내려온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려진 한국의 멋을 만날 수 있다.

[Secret Garden of Changdeokgung]

With palace architectures, a beautiful rear garden, also known as the Secret Garden, was created in Changdeokgung.

The Secret Garden, the secluded rear garden of the palace, was used for various purposes. It served as a place for composing poetry, a setting for contemplation, a venue for banquets, and as an archery range. The royal family enjoyed fishing and boating on the pond and fireworks were sometimes displayed here. The king and queen of the Joseon Dynasty also engaged farming and raised silkworms in this garden.



부용정

이곳은 후원의 중심 정원으로 왕의 휴식은 물론 왕실 도서관과 특별한 과거시험이 치러지던 교육을 위한 장소였다. 연꽃이 활짝 핀 모양의 부용정은 연못에 피어있는 한송이 꽃을 형상화하고 있다.

숙종은 특히 연꽃을 좋아하였는데 연꽃은 더러운 곳에 처하여도 맑고 깨끗한 군자의 덕을 지녔기 때문이라 한다.

[Buyongji]

Buyongjeong Pavilion embodies the shape of a lotus flower in full bloom in a pond. King Sukjong especially liked the lotus flower because it was said to be a flower with purity and purity even in a dirty environment.



불로문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소망인 불로장생.

창덕궁 후원에는 조선 왕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불로문이 세워져 있다.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진다. 이 불로문은 숙종 18년 (1692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왕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후손이 귀해 집에 따라 임금의 건강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Bullomun Gate]

Immortality, a common wish now and in the past.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there is Bullomun, which prays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Joseon royal family. It is said that those who pass through this gate will live a long and healthy life. Let's go through this door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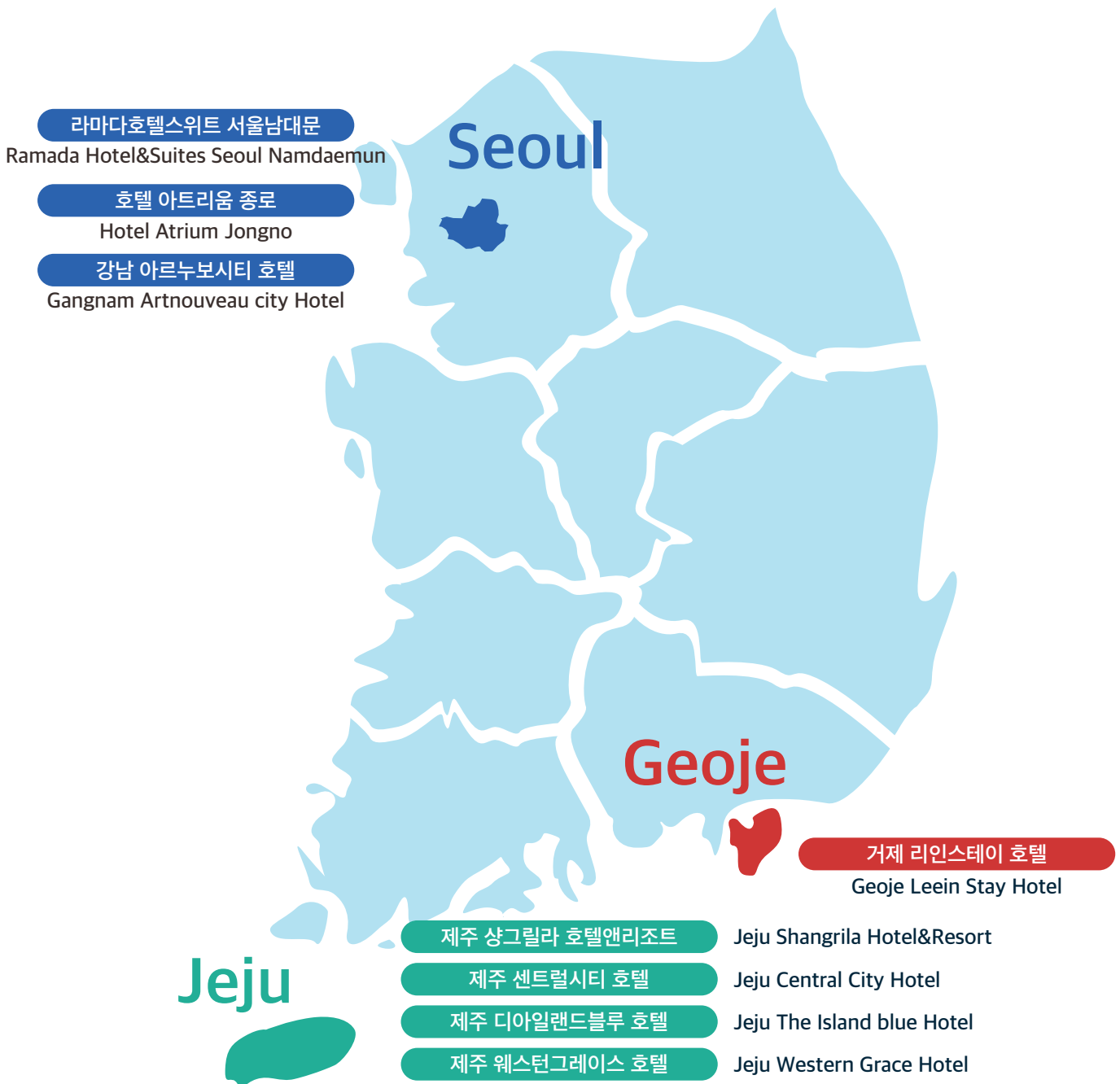


Your Next Stop in Korea. SeAn Hotel Group

여행, 일상이 되다

여행의 계절, 여름이 왔다.

금리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여행만큼은 고민없이 가볍게 떠나보자.



세안매거진 독자를 위한 호텔 할인 쿠폰

Season Sale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처 :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

사용기간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호텔

강남아르누보시티호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호텔아트리움종로, 거제리인스테이호텔, 제주센트럴시티호텔, 제주디아일랜드블루호텔, 제주웨스턴그레이스호텔, 제주상그릴라호텔앤리조트

사용방법

세안호텔그룹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쿠폰을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등록해주세요
www.seanhotelgroup.com 접속 > 회원가입 > 마이호텔 > 나의쿠폰 > 쿠폰등록하기

선착순 100매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쿠폰등록시 숫자와 함께 "-" 도 같이 입력해주세요
아이디당 해당 쿠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취소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객실금액에서 할인되며, 추가금액 (옵션선택)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ow to use coupon]

1. website : SeAn Hotel Group.com (www.seanhotelgroup.com)
2. expiration date : ~ 2023.12.31
3. Hotels : Jeju Shangrila Hotel & Resort, Jeju The Island Blue Hotel, Jeju Central City Hotel, Jeju Western Grace Hotel, Hotel Atrium Jongno, Ramada Hotel and Suites Seoul Namdaemun, Gangnam Artnouveau city Hotel, Geoje Leein Stay Hotel
4. You can use the coupon after registering it on the website. Hurry up to register before the sold-out.
5. Up to 100 coupons can be us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6. When registering a coupon, please enter "-" together with the number.
7. This coupon can only be used once per ID, and cannot be used again when a reservation is cancelled.
8. It is discounted from the room price, and the discount does not apply to the additional amount (option).

Exhibition



조명치 해양문화특별전

장소 : 국립민족박물관 본관 기획전시실

조명치가 무엇일까? 사람이름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애 물고기인 조기, 명태, 멸치에서 따온 단어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조명치가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전시는 조명치의 어획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판매에 걸쳐 전반적으로 연관된 우리들의 삶에 대해 소개한다.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연 많은 K-물고기들 조명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Croaker, Pollock and Anchovy on the Korean Table

Venue :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Koreans' favorite fish: Croaker, Pollock and Anchovy!

Do you know which country ranks first in the world for consumption of seafood per capita?

That's Korea. It is impossible to imagine life in Korea without croaker, pollock, and anchovies. This exhibition introduces our lives in general from fishing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ales.

Let's listen to the stories of the K-fish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그냥 하지 말라

저자 : 송길영

저자는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직업, 마인드 마이너’라고 소개한다. 대중들이 SNS에 올리는 수 많은 글과 사진, 영상은 그들의 생각, 관심, 욕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정리하면 트렌드와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욕망의 부딪힘 속에서 변화의 방향, 즉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고려하며 행동하라고 이야기한다.

Don't just do it!

Author : Song Gil-Young

The author introduces himself as a 'Mind Miner', a job that digs into people's minds. Numerous articles, photos, and videos posted by the public on social media contain their thoughts, interests, and desires. It is said that if these data are organized, it is possible to read the flow of society and predict the future. The author provides a direction for change through this book and tells us to consider it and act.



안나 카레니나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안나 카레니나.

안나 카레니나는 결혼생활 중 매력적인 젊은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 뜨거운 욕망은 불안한 현실로 이어지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 톨스토이는 이 위험한 관계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남성우월주의 귀족 사회 속 위선적인 면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에 대한 톨스토이의 고민을 특별한 연출방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다.

Anna Karen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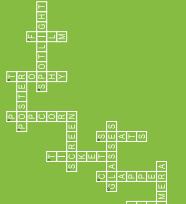
Anna Karenina based on the novel by Lev Tolstoy. During her unsatisfactory marriage Anna Karenina meets her charming young officer Vronsky and falls in love with her. This intense desire leads to an unsettling reality and eventually she meets catastrophe. Centering on this dangerous relationship, Tolstoy talks about the hypocritical side of Russia's male supremacist society. This film depicts Tolstoy's concerns about the social structure with a special directing method.

English Words Quiz!

KIDS crossword "At the cinema"

1. clapper
2. tickets
3. poster
4. spotlights
5. popcorn
6. trophy
7. film
8. screen
9. seats
10. glasses
11. soda
12. camera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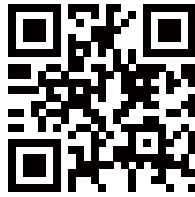
발행일
2023년 6월 29일

발행처
주식회사 세안텍스 / 세안에이앤에이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30길 13 세안빌딩

문의
seanana@seantecs.co.kr
02-3413-9331

홈페이지
www.seantecs.co.kr
www.seananan.com
www.seanhotelgroup.com



SeAn Group